

빈곤인식이 사회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 - 복지인식을 매개효과 중심으로 -

오승재*, 이영광**, 지은구***

*계명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선임연구원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osg4608@naver.com

Effect of poverty perception on social policy evaluation

- Focusing on welfare awareness as a mediating effect-

Seung Jae Oh*, Young Kwang Lee**, Eungu Ji***

*BK21PLUS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gration expert, Researcher, Daegu, South Korea

**Daegu Metropolitan City Social Service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Fellow, Daegu, South Korea

***Dept.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빈곤인식과 정부 사회정책 평가의 관계에서 복지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자료는 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인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인식은 정책평가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인식은 복지인식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인식은 정책평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인식은 정책평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인식이 사회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복지인식이 매개효과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정리내용을 보면 한편 독립변수인 빈곤인식과 사회정책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서론

2017년 대선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에 비해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더 필요로 하며(강정희·염동문, 2014),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Page & Shapiro, 1983; Brooks & Manza, 2006).

2. 이론적 배경

2.1 빈곤인식

한 국가 또는 사회의 빈곤에 대한 인식은 빈곤대책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Lepianka et al., 2010; van Oorschot & Halman, 2000). 또한 빈곤인식은 빈곤층의 사회적 위상 및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및 박탈에 대해 이해하는 맥락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이상록, 김형관, 2014).

빈곤에 대한 인식은 빈곤의 주체에 따라 크게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뉜다(손지현, 박해궁, 최윤정, 장지현, 2017). 개인주의적 관점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및 의지부족, 게으름, 질병, 장애 등으로 인식한다. 반면, 구조주의적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 정부의 무능함, 기회의 부족(부족한 기회),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식한다(Weiner et al., 2011).

2.2 사회정책평가

일반 국민들이 내리는 평가에 대한 연구는 정책 평가보다는 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였다.

Brown과 Coulter(1983)는 경찰서비스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치적 태도, 서비스의 객관적 조건, 서비스 경험, 서비스 기대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후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된 SERVQUAL 모형(Parasuraman & Berry & Zeithmal, 1988)이 개발되었다. 이 모형은 서비스 품질의 인식과정이 5가지 차원의 성과들(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과 기대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후속 연구들은 이를 기반으로 공공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구성하는 차원과 측정항목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영향요인들 간에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Johnston & Silvestro, 1990; Wagenheim & Reurink, 1991; 강황성, 이훈례, 김영오, 2008).

3.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3년 주기(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14차 wave)를 사용하여 빈곤원인인식과 복지인식이 사회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결측치를 제외한 2,946명의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빈곤원인인식, 복지인식이 국민들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안상훈, 2000; 김승권 외, 2006; 주은선 외, 2007; 김신영, 2009; Inglehart, 1997).

결국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대응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응성(responsiveness)은 바로 국민의 요구 및 선호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수요)와 관련하여 정부가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 하는 문제로서 정부의 복지공급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다(김승권 외, 2006).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대응성이 개인의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달성되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강정희, 염동문. (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논총*, 30(2), 319-351.
- [2] 김교성. (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43-82.
- [3] 서병수. (2014).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사회법연구*, 17, 63-92.
- [4] Blekesaune, M. (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393-403.
- [5] Page, B. I., & Shapiro, R. Y. (1983).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1), 175-190.